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의한 패션이미지의 구성 연구  
-국내·외 팝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A Study of Fashion Images Constructed by Make-up & Hair Style**  
**-Focusing on the Music Videos of Pop Singers-**

이윤선<sup>+</sup>·최현숙

Yoon Sun Lee<sup>+</sup> · Hyonsook Choy

혜천대학 초빙교수<sup>+</sup>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Invitation Prof. Hyecheon College<sup>+</sup> · Prof.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By using audiovisual content as a product of image, today's media culture express and transmit fashion images through the media's various symbolic idols. This process can be seen as a means for the masses who receptively accomodate media culture to freely express subjective individuality and aesthetic values. These fashion images are expressed in various styles,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Dress, Make-up, and Hair Style.

Thu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goal to proffer basic research data concerning Make-up and Hair Style in fashion image composition. This is done by analyzing the Make-up and Hair Styles that define the image, look, and style which compose the identities of Pop stars, who can be said to be the representative idols of 20th century.

The following methodology is employed for this study. First,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Make-up and Hair Style is accomplished through general investigation. A thorough analysis of fashion images expressed by typical media icons such as Madonna, Um Jung-hwa, Lee Jung-hyun is done, after their classification according to domestic/foreign origins. Last of all, the design developments of the researcher's works are presented to give this study a sense of re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deduced that the interest concerning Make-up and Hair Style, which has started alongside civilization, has changed dynamically according to era and culture.

Second, Madonna was chosen as the main subject for the analysis of changes in fashion imag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images that are expressed in her music videos can be classified as kitsch, pastiche, parody, and fetishism. Third, the two other subjects chosen for comparative analysis are Korean pop artists Um Jung-hwa and Lee Jung-hyun, and they showed similar fashion images to Madonna.

Fourth, the importance of Make-up and Hair Style in fashion image changes is reconfirmed through

the design development of the researcher's works.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of fashion images expressed in music videos, this study has proven the importance of Make-up and Hair Style which compose multilateral fashion images, thus establishing their proper position in fashion.

Key Words : Make-up, Hair Style

## I. 서론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미디어문화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는 오늘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그 내용과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상징, 신화 등으로 하나의 공통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미디어문화는 이미지, 음향, 스펙타클을 통해 일상생활을 구조화하고 여가시간을 지배하며, 정치적 관점과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고 대중들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한다<sup>1)</sup>. 특히 현대의 미디어문화는 이미지문화로서 영상과 음향을 사용하고 미디어의 상징적 우상들의 패션이미지를 보여주므로 대중들에게 시각적인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 미디어의 상징적 아이콘들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자기 자신의 패션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실행해왔다. 특히 그들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그들만의 개성의 조화가 중시되는 토탈 이미지화에 기여하면서 대중의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세기 대중문화의 대표적 상징인 마돈나는 정체성의 산출에서 이미지, 룩, 패션, 스타일의 창조를 특권화 함으로써, 소비와 패션산업의 생산품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패션이미지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마돈나의 패션의 조형적 분석 연구<sup>2)</sup>가 있으나 의상을 통한 분석이 대부분이며, 현대패션을 마무리하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본 대중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인 마돈나를 사례로 변화하는 패션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요 요소로서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상징적 이미지에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향후 대중문화 부문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표현하는 패션이미지 구성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Douglas Kellner(1997), *Media Culture*, 김수정. 정중희역, 새물결. p. 470.

2) 유진옥(2000), 마돈나의 패션의 조형적 분석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첫째, 패션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미디어문화의 대표적 아이콘들을 국내·국외로 나누어 마돈나와 엄정화·이정현 등의 사례를 통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변화에 따른 패션이미지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연구자 본인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작품디자인 개발을 통해 연구내용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패션이미지 변화의 구성에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패션에서의 정당한 위치를 정립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메이크업(Make-up)과 헤어스타일의 고찰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화장은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문화가 아니라 문화의 향수와 표출에 의한 개인의 특성과 표현의 다양성이 현대에 이르러 문화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인간의 미적 가치를 나타내는데 있어 시대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에 메이크업의 주요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화설(美化說)로서, 인간의 생태적 본능 중의 하나로 타인과의 사이에서 누구나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욕망을 지녔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본능적인 과시 욕구인 본능설로서 특히 여성은 인류가 농경사회로 접어들고 정착생활을 함에 따라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을<sup>3)</sup> 했다는 견해이다. 셋째는 장식설로서 옷을 입기 시작하기 이전 원시시대에는 나체 상태에서 피부에 직접 회화, 조각, 문신을 이용하여 우월성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형태가 오늘날의 메이크업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었다<sup>4)</sup>. 넷째는 신분 표시설로, 신분·계급·남녀 성별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섯째는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의설로 보는 견해로서 전승(戰勝)을 기원하기 위해서 얼굴에 색칠을 하는 관습은 지금도 원시 민족 간에 남아있고, 질병이나 신(神), 그리고 악마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를 쫓기 위해 얼굴이나 몸에 색칠을 하는 관습도 계속 남아 있다<sup>5)</sup>.

헤어스타일의 사전적 의미는 머리형 또는 헤어두(hairdo)라고도 하며, 프랑스어의 꾸아튀르(coiffure)에 해당한다. 헤어스타일은 시대, 민족, 개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

3) 천지연 외 (2001), FACE IN MAKE UP, 청구문화사, P. 13.

4) 강병석(1984), 토탈패션으로써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p. 3

5)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서울:도서출판 답게, p. 21.

은 규칙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머리 형태는 끊임없이 일종의 덮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둘째, 특정한 변칙적 시기를 빼고 확실한 성차별 없이 계급 차의 상징이 되었으며 셋째, 단독으로 혹은 모자나 머리장식과 머리 부분의 변형과 수식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그로 인해 헤어스타일은 때로는 조화적이고 때로는 대립적인 형태로 의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 2. 패션이미지의 개념

패션은 원래 인위적인 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의상이나 화장, 가구, 생활양식, 상품디자인, 미술상의 각종 스타일, 음악 형식, 사상, 경향 등에 넓게 적용된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은 인체를 장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홀랜더(Hollander)는 패션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든 바람직하게 보이는 방식들의 모든 스펙트럼’이라고 정의하면서 ‘어떤 사회에서든 모든 사람들이 입기를 원하는 것들의 범위가 패션에 있으며 패션은 일정한 기간 내에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취미, 기호,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전염되는 사회적 동조현상’이라고 설명했다<sup>7)</sup>. 혼(Horn)은 ‘패션이란 집단행동의 표출로서 일정기간에 인기 있고, 수용된 지배적 스타일을 나타낸다’고 정의하고 있다<sup>8)</sup>.

한편 이미지란 상, 표상(象, 表象)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는 말로 가지적 형태나 율동 등의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분위기, 감각, 연상 등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인간의 지각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이미지란 인간의 지각을 통한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외부상황의 재 표현이다. 따라서 이미지의 개념은 인간행동에 작용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sup>9)</sup>.

그러므로 패션이미지는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반적인 느낌을 메이크업을 비롯한 헤어스타일, 구두, 주얼리 등의 모든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뷰티에 속하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외관상 통일미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III. 팝스타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의한 패션이미지 분석

본 장은 뮤직비디오, 앨범, 영화 등의 패션 이미지를 고찰한 유진옥의 선행연구<sup>10)</sup>와 앞에서

6) 윤소영(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7) A. Hollander(1980),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Avon Book.

8) 이선재(1998), 의상학의 이해, 학문사, pp. 269-271.

9) 이경도(1996), 색채이미지와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

언급된 미디어문화에서의 이미지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더글라스 켈너(Douglas Kellner)의 분석을 기초로 이들이 분류한 이미지의 공통점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외사례로는 마돈나, 국내 사례로는 엄정화, 이정현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였다.

## 1. 패션이미지의 분류 및 내적 의미

### 1) 키치(Kitsch)

키치(Kitsch)의 사전적 의미는 ‘예술상의 저속한 값없는 작품, 속악 저급한 것, 값싼 감상’<sup>11)</sup>이다. 키치란 독일어 ‘kitschen’(기첸)에서 유래한 말이며, 1860년대 독일 남부에서 처음 사용된 키치는 ‘천박하며 저속한 모조품’ 대량생산된 싸구려 상품을 마치 훌륭한 진품인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하는 현상을 의미<sup>12)</sup>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키치 양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학자들이나 미학자들의 키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치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찾도록 보여준다. 미와 추리는 초월적인 관념에서는 그러한 자발성을 찾아볼 수 없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던 개인의 참여가 점차 개인의 자발성에 취임됨에 따라 현재는 개인의 참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커지고 있다. 유행이란 ‘자신의 주위와 동떨어지지 않고서도 자신만의 변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경쟁 현상이다. 키치란 장인적 재능의 회복이며 편안이라 불리는 일상생활의 안락함 속에서 추구된 예술의 회복이며 초월적인 예술의 파괴이다. 간단히 말해 키치는 천재에 대한 재능의 위대한 승리이다.

### 2) 패스티쉬(Pastiche)

사전적 의미로는 혼성모방을 뜻하는 패스티쉬는 이탈리아어 ‘패스티치오(pasticcio)’에서 유래한 용어로서<sup>13)</sup> 우리말로 번역하면 ‘혼성모방(混成模倣)’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혼성(混成)’은 ‘서로 혼합하여 이루어짐’으로, ‘모방’은 ‘다른 것을 보고 본뜨거나 본받음, 흉내냄’으로 정의되고 있다<sup>14)</sup>.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혼성모방이 여러 가지 재료들의 메들리, 뒤범벅, 잡동사니, 난잡으로 정의되어 있는데<sup>15)</sup>, 이것은 이질적인 것이 잡다하게 혼합되어 있는

10) 유진옥, 앞의 논문.

11) 에센스독한사전(1983), 서울: 민중서림, p. 300.

12) 디자인사전(2000), (주)안그래픽스, p. 38.

13) Magaret A. Rose, Parody: Ancient, Modern and Post-modern(Cambrige University Press, 1993), p. 73. 양학미(1998),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에서 재인용.

14) 신기철·신용철(편저)(1991),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5) Oxford English Dictionary, vol.7, p. 531.

상태를 말한다<sup>16</sup>). 또한, 「The Dictionary of Art」<sup>17</sup>에서는 혼성모방을 다른 예술작품으로부터 스타일이나 테크닉, 모티프 등을 의식적으로 빌려온 이미지라 정의했으며, 이는 다소 연관이 없는 조합일 수 있다고 하였다<sup>18</sup>). 또한, 「세계미술용어사전」에서는 예술가가 스스로 빌려온 것을 자기 자신의 통일된 양식으로 융합해내지 않는 절충적인 작품이라고 하였다<sup>19</sup>). 이상의 사전적 의미와 비교 개념에서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혼성모방은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나 특정한 예술가의 작품으로 모티프, 스타일, 이미지, 테크닉 등을 아무 연관 없이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한 예술작품 또는 창작방법의 모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패러디가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인데 반해, 혼성모방은 의미 없는 표면적인 스타일상의 조합일 뿐이며, 과거의 스타일을 이용하면서도 레트로와 같이 역사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목적은 없다. 바꾸어 말하면 혼성모방은 모더니즘의 이미지를 차용하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박탈하고 예술적 생산물로 새로움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 3) 패러디(Parody)

패러디의 어원인 희랍어 *parodia*는 ‘para + odia’가 결합된 것으로 ‘대응의 노래 counter-song’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sup>20</sup>). 접두사인 *para*는 두 가지 의미로 분석될 수 있는데, 첫째, ‘대응하는(counter)’, ‘반하는(against)’이란 뜻으로 원작과 대립되거나 비교의 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의 의미는 ‘곁에(beside)’ 혹은 ‘가까이(close to)’라는 뜻으로 일치와 친밀성의 의미도 있다. 이 어원의 이중성은 패러디 연구에 있어서 보다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암시한다<sup>21</sup>).

패러디는 사회의 내에서 내면에 잠재된 감정을 외부로 이끌어냄으로써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해 준다. 시간은 사회를 변화시키며 사회는 그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는 양식을 수용하곤 한다. 과학기술과 첨단 통신시설의 발달은 생생한 색채 전달수단의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충격적인 영상체험의 세계를 가능케 하였으며 사진영상은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TV, 영화, 비디오의 보급은 회화가 가지는 고정적 폐쇄적 이미지를 전달을 뛰어 넘게 하였다<sup>22</sup>). 또한 패러디는 하나의 특정 대상을 깨뜨리면서 동시에 그 대상을 만들어 새로운 예술 창조의 지평을 여는 것이며 창조성의 범주를 확대하여 현대의 예술작품

16) 김옥동(1990),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p. 435.

17) Jane Turner, The Dictionary of Art, vol.7, p. 541.

18) 송례문 편(1994), 미술사전 용어편, 서울: 송례문, p. 833.

19) 월간미술 편(2998),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p.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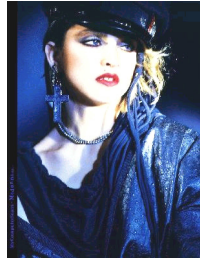
20) Margaret A. Rose, Parody/Metafiction, London: Croom Helm, 1979, p. 18.

21) Linda Hutchen/ 김상복외 역(1998), 패러디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p. 53.

22) H. 리드/김윤수 역(1990), 현대회화와 역사, 서울: 까치, p. 286-8.



<그림 1> 키치 이미지 「Boy Toy」  
(출처: www.madonna.n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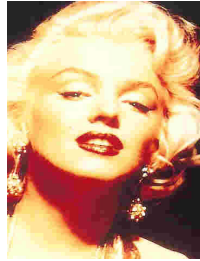
<그림 2> 키치 이미지 「Boy Toy」  
(출처: www.madonna.net.com)



<그림 3> 패스티쉬이미지  
「Vogue Tour」  
(출처: Madonna style)



<그림 4> 패스티쉬 이미지  
「Nothing Really Matter」  
(출처: www.madonna.net.com)



<그림 5> 패러디의 원형  
「Marilyn Monroe」  
(출처: Madonna style)



<그림 6> 페티시즘이미지  
「Blonde Ambition」  
(출처: Madonna style)

창조에 개별적 독창성을 넘어선 인용, 모방, 장소의 전이, 새로운 조합, 작품의 제작 과정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 4) 페티시즘(Fetishism)

페티시즘과(fetishism)과 페티시스트(fetishist)는 모두 페티시에서 파생된 것으로 페티시의 정의를 따르며, 심리학 영역에서 추가된 페티시의 의미를 포함한다.

페티시는 일반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매혹적인 대상 자체와 그 대상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인류학적 연구에서 페티시는 사물자체가 아닌 사물 안에 있는 정신을 지칭한다. 이러한 연구는 종교의 최초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원시종교에서 가시적인 대상에 대한 관심, 존경, 숭배를 페티시즘이라고 하였다<sup>23)</sup> 페티시즘은 그 의미나 사용에 있어서 페티시와 크게

23) 숭배의 대상을 9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 celestial body(태양, 별, 달) ; four element(땅, 공기, 불, 물) ; stones and rocks(신의 형상) ; trees and plant(웅장한 신성물) ; places and sites(신화와 기원 종족의 탄생지) ; lower animals(신성함을 부여받은 표범, 원숭이, 새) ; man(왕, 영웅, 주술사 등의 초인과 半神이라 여겨지는 쌍둥이) ; life and its transmission(영적 힘을 가졌다고 믿는 신과 사물) (Stephen S. Farrow, Faith, Fetich (Negro University Press, 1926) pp. 12-22) David Kunzle, Fashion and Fetishism (London : George Prior Associated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문법적 사용이나 차이는 없으며, 대부분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패션에서의 페티시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패션을 조형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특정한 성적 이미지를 페티시즘으로 해석한 것이다. 둘째는, 패션을 소비문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상품으로 가지는 의미를 페티시즘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이성복식의 착장의 페티시 이미지로서 페티시스트들의 이성복식의 착장에 대한 도착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특별한 형태의 디자인 요소를 가진 복식보다는 상대성의 전형(stereo-type)적인 복식을 통해 표현된다. 이는 복식의 조형적 형태가 가지는 페티시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착용 자 와 복식이 이루는 착장 상황이 가지는 페티시적인 이미지이다<sup>24)</sup>.

## 2. 국내·외 팝스타의 패션이미지 사례 분석

### 1) 국외

#### (1) 마돈나

미국의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인물로 정의될 만큼 미디어분야와 사회분야에서 다각도로 연구된 마돈나를 대상으로 위에서 분류된 패션이미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였다.

#### (2) 패션이미지별 분석

##### ① 키치(Kitsch)

마돈나는 최초의 MTV 슈퍼스타 중의 한 명으로 등장했고 그 뮤직비디오는 세심하게 제작하여 다양한 대중들에게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마돈나의 초기 뮤직비디오 가운데 1984년 「Lucky star」에서 마돈나는 관능적인 성적 대상인 혁신적인 패션창출자로 연출되었으며 그녀의 패션은 여러 금속체인과 십자가 등의 액세서리들로 특징 지워지는데 미숙한 표현을 자극하는 값싸고 손쉬운 피상적인 정서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퇴폐적으로 보이는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데 공통적으로 형클어진 금발과 블랙의 의상들로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하였다. 화려하지만 다소 거칠고 인위적인 재질과 색채에 대한 실험성을 가진 마돈나의 메이크업은 핑크계의 화려한 피부표현과 펜슬 타입으로 술이 많은 눈썹을 직선적이고 강한 형태로 그리고 갈색의 붉은 새도우를 눈덩이에 퍼 바른 후 짙은 회 보라색 아이라인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과장된 입술라인에 레드 칼라의 립스틱으로 섹시하면서 퇴폐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구릿빛 갈라에 거칠게 백콧을 하여 지저분하고 형클어지게 하여 야성적이면서

---

Publishers Ltd., 1982), p. 10.

24) 김소희(1998), 제프 월(Jeff Wall)의 작품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1.



도 어딘지 값싼 느낌의 키치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그림1)(그림2)

## ② 패스티쉬(Pasti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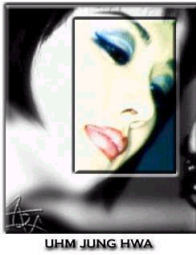
마돈나의 초기 앨범은 스페인 등 히스패닉의상, 인도풍 의상,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기모노까지 각국의 스타일을 패스티쉬하여 새로운 마돈나 룩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화와 복식과의 모더니즘 엘리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순수성과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분위기와 절충주의, 복고주의 특성까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다원주의적 사회흐름에 따른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풍토는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서유럽이외의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도전 새로운 미의식의 창조라는 결과를 낳았다<sup>25)</sup>.

1993년 「보그」에서는 태국의 머리장식과 검정색 브래지어를 착용, 동양적인 손동작으로 관능적임을 묘사했으며 레이저의 가벼운 칼날 끝을 이용하여 날아 갈 듯한 가벼운 커트선과 거친 질감으로 생동감 있는 금발을 하였으며 입술은 짙은 포도주색, 아이 홀라인을 잡은 보라색 펄의 아이새도우, 짙은 아이라인, 갈색의 얇은 눈썹을 표현하였으며(그림3) 1999년 [Nothing Really Matter]에서는 일본 기생인 게이샤(Geisha)에서 영감을 얻어 붉은색 기모노 Style에 의상을 입고 반 가르마한 검은색 직모에 핑크계열의 아이새도우를 이용 눈 꼬리와 광대뼈까지 붉게 펴 바르고, 마치 중국 경극을 연상하게 하는 메이크업을 보였으며 붉은 립스틱으로 마무리를 하였다.(그림4) 이들 패션이미지에서 보여 지는 마돈나의 혼성모방의 경향은 이후 다른 많은 팝가수들에게 모방되었다.

## ③ 패러디(Parody)

마돈나의 1985년 [물질적인 여인(Material Girl)] 뮤직비디오 전체는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서 [다이아몬드는 아가씨의 제일 좋은 친구(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라는 노래를 부르는 유명한 장면을 패러디 한 것이다. [물질적인 여인]에서 1950년대의 섹스심벌인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의 밝은색 피부톤에 약간의 인위적인 메이크업을 했다. 눈썹 산을 바깥쪽으로 치켜 올리고, 아이홀에 살구색과 밝은 브라운으로 음영을 주고 눈 중앙에 밝은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줌으로써 입체감을 강하게 주었다. 또한 바깥쪽으로 길게 붙인 속눈썹, 보트형의 빨간색 입술화장, 입기의 애교점등으로 섹시한 이미지로 메이크업을 선보였으며 Hair는 웨이브 진 금발의 관능적 스타일을 주었다.(그림5) 이렇게 마돈나가 스타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보여주는 것은 문화 현상에서 대중들에게 미치는 스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마돈나는 대중스타 중에서도 할리우드 고전영화의 여배우들을 모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페미니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 앤 카플란은 고전 영화의 배우들을 남성적 시선의 관음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이에 반해 마돈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으로 이를 해체한다고 하였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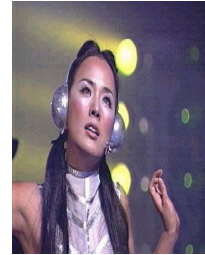
25) 김민정(1995),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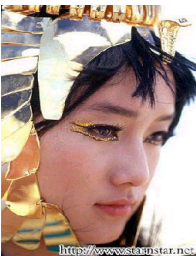
<그림 7> 키치이미지  
「슬픈기대」 뮤직비디오



<그림 8> 패스티쉬 이미지  
「몰라」 뮤직비디오



<그림 9> 패스티쉬 이미지  
「몰라」 뮤직비디오



<그림 10> 패스티쉬 이미지  
「너」 뮤직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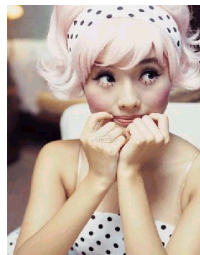
<그림 11> 패스티쉬 이미지  
「달아달아」의 뮤직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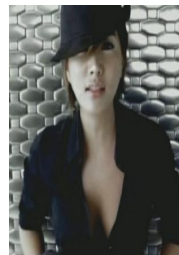
<그림 12> 페러디이미지  
「Escape」의 뮤직비디오



<그림 13> 페러디이미지  
「다가라」의 뮤직비디오



<그림 14> 페러디 이미지  
「줄래」 뮤직비디오



<그림 15> 패스티쉬 이미지  
신인가수 「h」의 뮤직비디오



<그림 16> 페티시즘 이미지  
「반」 뮤직비디오

#### ④ 페티시즘(Fetishism)

마돈나의 1990년 「블론드 앰비션」 투어 공연과 1993년 「걸리쇼」 공연 등에서 나타나는 의상은 광범위하게 란체리 룩으로 분류하나 이를 세분화하면 성도착적 페티시즘과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으로 구분하고자한다. 그녀의 아이템들은 검정스타킹, 가터 벨트, 섹시한 언더웨어, 가죽 등이 등장한다. 페티시즘은 애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대용물로서 신체의 일부분이나 의복품을 구하려는 욕구와 관련된 성 본능의 다양화 혹은 성 도착 증세를 말한다.

26) Douglas Kellner (1997), 앞의 책, p. 490.

페티시의 대상에서는 발, 머리카락, 피부와 같은 신체부위나, 신체특성, 의복전체 혹은 구두, 페티코트, 코르셋 같은 특정 의복이나 모피, 가죽, 실크 등의 소재가 포함 된다<sup>27)</sup>.(그림6) 마돈나의 비디오와 공연에서 볼 수 있는 코르셋과 브라지어등 겹옷과 속옷을 구분하는 기존의 패션을 해체하는 이미지를 포함하는데 모든 패션은 인위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즉 마돈나의 패션의 이미지는 단순히 성 도착이라는 표현을 넘어선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습의 해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sup>28)</sup>

## 2) 국내

### (1) 엄정화, 이정현

국내의 대중문화를 선도한 엄정화와 이정현을 대상으로 위에 분류된 이미지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였다.

### (2) 패션이미지별 분석

#### ① 키치

엄정화의 초기 뮤직비디오 「슬픈 기대」(그림7)에서는 자신을 유희적인 성적 대상자로서 자극적인 색채의 과다 사용으로 패션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이미지 구성을 재구성하고 있다.

산만한 칼라의 레깅스 바지와 자주 빛의 몸에 맞는 셔츠를 착용하거나 헐렁한 셔츠에 짧은 바지를 입거나 란제리 같은 원피스에 검정색 긴 장갑을 끼고 관능적인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다소 인위적이고 화려한 패션가발을 이용하여 퇴폐적이고 저속한 키치적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1990년대 코팅염색과 함께 머리에 입체감과 변화를 주는 패션가발의 유행으로 한 가지 스타일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스타일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메이크업에서 눈썹은 다소 도톰하게 그려주되 끝으로 갈수록 가름하고 샤프하게 그려 주었으며 칼라 속눈썹을 이용하여 키치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육감적이고 섹시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 ② 패스티쉬

엄정화의 5집 「몰라」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안티스탠다드 패션<sup>29)</sup>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

27) 이정후(1997),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실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8.

28) 안티스탠다드 패션(anti-standard fashion) : 하나의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믹스하여 자신을 표현한 것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임지의 아이템을 코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패션의 형태이다. 단, 안티스탠다드 패션 속에서도 스탠다드 패션의 요소들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조, 박종희(1995),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안티스탠다드 패션(anti-standard fashion) : 하나의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믹스하여 자신을 표현한 것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임지의 아이템을 코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패션의 형태이다. 단, 안티스탠다드 패션 속에서도 스탠다드 패션의 요소들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믹스하여 자신을 표현하였다. 특히 이국적인 이미지를 가미시킨 그녀의 5집 뮤직비디오의 첫 단락에서는 로마군인의 패션스타일이 가미된 의상에 스트레이트가 된 긴 머리에 자연스러운 피부색과 볼 뼈와 관자놀이에 갈색 볼 터치로 살짝 스쳐주고 갈색의 새도우로 눈매를 표현하였다. 둘째 단락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뮤직 비디오로 원시적 밀림에서 나온 듯한 아프로 스타일(Afro-style)<sup>30)</sup>에 밝은 브리지를 사용한 헤어스타일과 블랙의 힙 행거 팬츠(hip hugger pants)의 의상에 아래위로 인조속눈썹을 사용, 극단적으로 강조된 눈의 표현에 반해 눈썹은 연하게 표현하였고 황갈색의 립스틱을 사용하므로 눈의 표현을 더욱 부각시켰다.(그림8) 셋째 단락은 어깨가 드러난 스트래플리스 드레스에 동양적인 중국전통 화장인 경극 메이크업에 피어로 메이크업을 응용한 패턴으로 키치적 패스티쉬를 보여주고 있으며 헤어는 업스타일을 하여 메이크업을 강조 시켰다. 넷째 단락에서는 미래적인 성향을 보이는 뮤직 비디오로 인디언풍의 양 갈래 머리에 미래적 의상과 썬텐이 된 피부표현에 T존 부위와 눈 주위에 흰색 펄을 사용하여 섹시하면서 우주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입술은 자신의 입술 색을 살린 자연스러우면서 관능적인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사이버적인 이어폰을 사용하여 미래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그림9)

이처럼 하나의 뮤직비디오 안에서 다원주의적 사회 흐름에 상대주의적 가치관으로 다양한 패션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정현은 1999년 1집 「와」 뮤직비디오에서는 테크노 음악에 적합한 연출로 표현,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첨단기술과 미래지향적인 테크노풍 하이테크 소재와 아방가르드한 패션을 다양하게 시도하였으며, 사이버 메이크업으로 메탈릭한 피부와 입술에는 회색과 흰색의 립을 사용하여 미래적 전사를 표현하였다. 두 번째에서는 마치 깊은 병에 걸린 환자 또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피부나 눈썹에 창백한 인상과 눈 주위에 붉은 색의 아이새도우를 이용하여 피기스러움을 연출하였고 입술은 일본식 메이크업처럼 입술중앙부에 붉은 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또한 중국영화에서 나온 듯한 헤어스타일은 탑 부분에 V형태의 블로킹을 하고 뒷부분에는 긴 머리에 가채를 엮고 비너를 꽂아 동양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로테스크하면서 여신 같은 공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000년에 발표한 2집의 「너」에서는 얇은 소재의 의상에 이집트 메이크업의 응용으로 공격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였으며 눈 라인에 황금 펄을 사용하였고 머리에 이집트를 상징하는 관을 씌워 이집트여왕의 고고함을 표현하였다.(그림10) 4집의 「달아달아」에서는 자기키의 절반만한 붓을 쥐고 한삼을 낀 채 신명나는 봉산탈춤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전통 혼례 때 하는 하얀 피부표현과

이다. 참조, 박종희(1995),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60-70년대 흑인 스타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 헤어스타일은 피머를 길게하고 잔뜩 부풀린 것. 아프로(afro) 또는 에이프로 헤어라고 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폴로 헤어스타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연지를 사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은 탑 부분의 횡거 웨이브<sup>31)</sup>와 뒷부분에 긴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표현하였다.(그림11) 이처럼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혼성 모방하는 패스티쉬 이미지는 이정현의 초기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

### ③ 패러디

「몰라」의 다섯째 단락에서는 중국영화 「천년유혼」의 왕조위를 패러디한 의상과 창백한 메이크업, 긴 생머리에 스카프를 타래스타일 만들어 얻어 마치 가채를 쓴 형태의 헤어로 연출하였다. 6집의 「Queen of Charisma」 중에 *Escape*의 뮤직비디오에서는 팜므 파탈의 이미지인 위험스럽게 매력적인 여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를 위해 *Make-up*은 1930년대 그레타 가르보의 관능적인 메이크업의 형태를 재현하고 보라색의 신비스러운 색채를 사용하였다. 30.40년대 흑백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에 반짝이는 펠을 사용, 화려함을 극대화 시켰다. 얼굴의 색조는 밝고 눈썹은 가느다란 곡선으로 진하고 길게 표현, 아이라인은 길게 그린 후 인조속눈썹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여 신비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입술은 립라인을 강조하고 흐린 핑크펠 립스틱을 발랐다. 헤어스타일은 메탈적인 느낌과 신비스러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쥘리 캡(*cap*)을 사용하였다.(그림12) 이처럼 문화현상에서 대중들에게 미치는 스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고전 스타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패러디함을 볼 수 있다.

「다가라」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어깨끈이 달린 캐미솔 탑에 스펅글이 달린 원피스를 입고 푸른색의 긴 장갑을 착용, 우아함과 섹시함을 연출하였으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눈썹과 굵고 끝이 올라간 화살형의 아이라이너를 사용, 50,60년대의 오드리 헵번의 요정 같은 우아함을 연상하게 하는 *Make-up*과 자유롭게 컷이 된 앞머리 뱅에 뒷부분의 머리를 묶어 몇 가닥을 포인트 주어 세워준 *Hair*를 연출, 깔끔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13)

이정현의 2집의 「줄래」의 뮤직비디오는 60년대의 만화적 이미지와 익살과 유머가 더해진 바비 인형 같은 귀여움으로 연출하였다.(그림14) 메이크업 스타일로서는 트위기를 연상시키는 아이홀 메이크업과 과장된 속눈썹의 표현, 인형과 같은 핑크색이 도는 색감에 얼굴 앞쪽중심으로 그려진 볼터치, 핑크펠 립스틱을 사용하였으며 *Hair Style*은 과감한 컬러 가발에 부풀은 머리로 인형 이미지를 완전히 패러디 하였다.

### ④ 페티시즘

최근 신인가수 「h」의 뮤직비디오(그림15)에서 보여준 엄정화는 남성복장을 착용한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sup>32)</sup>의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녀는 남성의 정장차림과 셔츠를 착

31) 다양한 헤어스타일 중 손가락, 빗, 웨이빙로션 혹은 머리핀과 클립 등을 이용하여 모발에 웨이브를 주는 기법이다. 이것은 모근의 머리와 모다발의 머리가 같은 위치의 흐름과 같은 결로서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웨이브다. 백경미(2003), 헤어디자인의 웨이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6.

32) 트랜스베스티즘은 이성의 복장착용을 통해 성적만족을 얻으려는 복장도착을 말하는데, 흔히 페티시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Elizabeth Wilson, *Adorned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1985)

용함으로써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을 사용하고 있으나 셔츠의 앞단추를 풀어 여성임을 확인시킨다. 또한 불규칙하게 자른 커트머리에 보이쉬한 모자를 사용하였으며 갈색의 피부톤에 사선의 갈색 볼 터치를 사용하여 샤프한 남성스러움을 연출하면서 눈에는 아이라이너와 입술에는 관능적임을 보여주는 광택 나는 립그로스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엄정화의 패션이 미지 구성에서도 이성복장착용을 통한 페티시즘의 연출이 돋보이는 것은, 포스트모던사회에서 양성간의 성별해체와 함께 이성복장착용에서 야기되는 전복적인 성적매력을 동시에 보여 주려는 전략이라 하겠다. 이러한 페티시즘 전략은 현대의 젊은이들에게서 모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정현의 3집 「반」(그림16)에서 페티시적인 소재인 검정가죽옷을 입고 에로틱한 페티시 이미지를 연출한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가장 여성스러우면서도 청순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페티시즘의 대표적 소재인 몸에 꼭 붙는 검정색상의 가죽의상을 사용하고 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짙은 검정색의 긴 머리로 엄색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성적매력으로 이끌어 가는데 성공하였다.

<표 1> 마돈나, 엄정화, 이정현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 비교 분석

		마돈나	엄정화	이정현
키치	메이크업	직선적이고 강한 눈썹형태, 강한 아이라인, 원색적인 아이새도우, 과장된 입술라인에 레드립스틱	블루계열의 아이새도우, 굵고강한눈썹, 과장된입술라인에 와인색립스틱	뚜렷하지 않음
	헤어	형클어진 금발웨이브	다양한 색상의 패션가발, 검정색의 보브 헤어	
패스티쉬	메이크업	풍만한 곡선의 눈썹 라인, 선정적인 붉은 입술	눈을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인조속눈썹사용), 경극+피에로메이크업	눈의 라인을 과장되게 강조, 한국전통 화장인 연지사용
	헤어	미디엄길이에 지라시 스타일	긴 머리, 아프로 스타일, 양 갈래 묶은 머리	
패러디	메이크업	밝은색 피부, 살구색과 밝은 브라운에 아이홀, 보트형의 붉은 입술	보라색의 홀 라인 화장, 눈썹은 가늘고 긴 곡선, 화살형의 아이라이너	스모키 메이크업에 앞쪽중심의 볼터치, 핑크 펄 립스틱
	헤어	금발의 컬링헤어	보석모자사용, 앞머리 뱅에 뒷부분은 업스타일	
페티시즘	메이크업	각지고 굵은 눈썹, 흰색필사용, 굵은 아이라이너	갈색의 피부톤, 입술라인을 확대하고 글로시 하게 마무리	내츄럴
	헤어	포니테일, 굵은 금발 웨이브	보이쉬한 커트	

#### IV.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디자인 작품 개발

본 장에서는 연구자의 작품 개발을 통해 동일한 모델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위에서 분류된 패션이미지들로 변화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2>

<작품1>은 키치 이미지를 보여주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키치의 핵심인 천박하고 저속한 모조의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 진중하지 않고 들뜨듯한 감성을 아주 밝은 색의 피부와 볼 중앙의 붉은 색 볼터치 및 선명한 붉은 립스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눈 주위는 흰색의 아이섀도우를 강하게 사용하여 핑키한 느낌의 키치를 연출하였다.

<작품2>는 패스티쉬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가부끼 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스타일은 커다란 인조 베이스를 이용하여 족두리를 얹은 듯한 느낌과 땀은 머리를 병용하였다. 패스티시가 갖는 혼성모방의 의미는 일본 전통극인 가부끼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한국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의 차용을 통해, 그리고 이들의 전통 문화적인 결합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모던한 터틀넥 스웨터의 혼용을 통해 빌어온 것들을 차용한 혼성모방이라는 패스티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작품3>은 대상을 해체하고 이들을 재인용함으로써 원작과 비교하거나 모방하는 의미를 가진 페러디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메이크업을 한 것으로, 티 없이 창백한 색상의

<표 2> 패션이미지를 위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디자인 개발 작품

		작품사진	
			
Image	작품 1. 키치 이미지	작품 2. 패스티쉬 이미지	
			
Image	작품 3. 페러디 이미지	작품 4. 페티시즘 이미지	

피부표현에 왁스를 사용하여 둥글고 높은 아치 형태를 이루는 눈썹과 분명한 홀 라인을 잡은 아이 메이크업을 통해 그레타 가르보를, 그리고 장식적인 태슬이 연속적으로 달려 있는 캡 스타일의 헤어 악세서리를 사용하여 영화 마타하리를 패러디 하였다.

<작품4>는 페티쉬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그 대표적 방식인 이성복식 착용을 헤어와 메이크업을 통해 매니쉬 룩으로 연출하였다. 메이크업은 여성적인 광택을 배제한 매트한 피부표현에 초점을 두었다. 불연지는 없애고 깔끔한 눈썹처리와, 중후하고 남성적 이미지의 색상인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함으로써 남성적 이미지를 가진 여성으로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컬이나 곡선 처리 등 여성적 장식성을 전혀 채용하지 않기 위해 헤어 젤을 이용하여 깔끔하게 올백으로 처리 한 후 남성 악세서리의 대명사 격인 중절모를 착용시켜 전체적인 이미지를 페티시로 구성하였다.

#### IV. 결 론

패션이미지는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변화하였는데 그 중에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패션이미지 창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개념과 정의를 고찰하고 패션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국내·외 가수인 마돈나와 엄정화, 이정현을 분석한 후 이들의 패션이미지에 따라 본인의 작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문화를 통해 정체성 표현의 대변자 역할을 한 마돈나를 대상으로 뮤직비디오, 앨범 등을 통해 패션이미지를 키치, 패스티쉬, 패러디, 페티시즘으로 분류하고 이를 구성하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패션이미지 선두주자인 엄정화, 이정현의 경우도 동일한 범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표1>

둘째, 이상의 연구를 실증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동일한 모델을 4가지 패션이미지별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연출하여 연구자의 작품을 디자인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차별화 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패션이미지 구축에 있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다각화된 이미지를 보여주므로 복잡하고 대중화된 현대 사회의 정체성 산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임을 본 연구는 밝힐 수 있었으며, 따라서 패션에서의 이들의 정당한 위치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가 여성을 대상으로, 특히 가수의 패션이미지 분석으로 한정되었으므로, 향후 연구의 폭을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연구방법을 좀 더 정교화 함으로써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분야에서 한층 발전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덕록 (1997). 화장과 화장품. 서울: 도서출판 답게.
- 김옥동 (1990).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 류지원 외 공저 (2001), 미용학 원론. 고문사.
- 리처드 다이어, 주은우(역) (1995). 스타-이미지와 기호. 한나래.
- 린다 허치언, 김상구, 윤여복(역) (1992).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 승례문편 (1994). 미술 사전 용어편. 승례문.
- 엘리자리 (1993). 엘리자리의 gogo메이크업. 서울: 가서원.
- 오창섭 (1997). 디자인과 키치. 토마토.
- 이강수 (1997).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현대미학사.
- 이선재 (1998). 의상학의 이해. 학문사.
- 정진수, 정용탁 (2002). 대중예술의 이해. 집문당.
- 강병석 (1984). 토탈패션으로써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1995).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1997).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1).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은 (1995).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훈 (1990).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미 (2003). 헤어디자인의 웨이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향미 (2002). 현대패션 및 신체장식에 나타난 혼성모방(pastiche)분석. 충남대석사학위논문.
- 유진옥 (2000). 마돈나패션의 조형적 분석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도 (1996). 색채이미지와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2002). 이미지 문명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마셀 마페줄리의 탈근대성논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후 (199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조은별 (1995).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기 (1999).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포스트모더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ne Hollander (1978).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Penguin Book.
- Bordo, Susan (1992). Material Girl: The Effacements of Postmodern Culture. in Cathy Schwichtenberg

- The Madonna Connection. Boulder: Westview.
- Carol Clerk (2002). Madonna Style. Omnibus press.
- Douglas Kellner, 김수정, 정종희(역) (1997). Mdia Culture. 새물결.
- Elizabeth Wilson (1985). Adorned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 Geogina Howell (1975). In Vogue. London: Randon House.
- Jane Turner (1996). The Dictionary of Art. Macmillan.
- M. Barnard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Valerie Steele (1996). FETISH: Fashion, Sex and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 <http://www.hk.co.kr/woman/beauty>
- <http://www.uhmjunghwaforever.com>
- <http://www.jhlove.com>
- <http://evita.gazio.com>
- <http://sms1914:hihrme.com>